

재가 '구성원이되 대의원 될 수 없는 위상'

'종단은 승려(비구·비구니)와 신도(우바세·우바이)로서 구성한다. 하지만 중앙종회 의원 자격은 승랍 15년, 연령 35세 이상의 승려로 한다.'

조계종 중헌 8조와 33조항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묶어낸 내용이다. 재가자를 종단 구성원으로 인정은 하되, 종단의 입법기구인 중회 참여는 제한한다는 의미다. 세속적 잣대로 보면, '국민은 국민이되 국회의원이 될 수 없는 국민'인 셈이다. 출·재가들의 공동체인 승가(僧伽). 오늘날 한국 불교승가는 이처럼 승가공동체 정신과 이율배반적인 현실에 있다. 사부(四部)대중은 종단의 주인으로서 평등한 관계가 마땅하지만, 현실은 출가 이부(二部)대중 중심으로 변모했고, 복잡다단해진 현대사회 속에서 출·재가의 역할분담은 모호해졌다. 이 같은 현상이 왜 발생했을까? 출·재가의 불평등한 요소와 그 원인, 바람직한 출·재가 관계 모델 제시 등을 통해 진정한 승가로 돌아가기 위한 대안을 모색해본다.

종단운영 출·재가 함께 해야

●출장으로 본 사부대중의 평등문제

출·재가의 평등에 대한 불교적 근거는 간단명료하다. '일체중생살유불성(一切衆生悉有佛性)'이다. '모든 중생에는 불성이 있다'는 부처님의 이 선언이 바로 사부대중의 평등정신이 된다.

초기율장과 대응율장은 출·재가 평등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었을까? 먼저 초기불교 율장에서는 출·재가의 평등에 대해 명확한 입장 표명이 없다. 다만 출가자 삶의 방식만을 규정하고 있다. 출·재가에 대한 평등을 언급한 조항이 없는 셈이다.

각목 스님(초기불전연구원 지도부장은 '초기율장을 통한 출·재가의 평등문제는 아무런 근거 조항이 없어 논할 수 없다'며 '출가자는 재가자의 복건이 되고, 재가자는 재물의 보시로서 출가자를 외호하는 것으로 관계를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한다.

반면 대응율장에서의 출·재가 평등에 대한 시각은 적극적이다. '차이'는 있어도 '차별'은 없다는 입장이다.

목장배 교수(대한불교법사회 이사장은 '대응율장은 초기율장과 달리 한 번 귀의한 사람이 한 계목을 파해도 참회하면, 영원한 불자로 인정한다'며 '계목의 부분적 또는 전체적 실천 유무는 출·재가를 구분하지 않는 대응율장의 사부대중 평등정신에서 의미가 없다'고 강조한다.

특히 목 교수는 출·재가의 평등관에 대해 '출가자-재가자'란 용어부터 재정의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즉 '출가자(비(非)출가자'로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가자는 출가를 못한 '미(未)출가자'가 아니라, 출가를 하지 않은 '비출가자'로 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상과 같은 '불평등'한 현실

출·재가 간의 불평등 문제는 어디에서 발생했을까? 목 교수는 '초기불교교단의 보시권인 '사방승가(四方僧伽)'에

서 비롯됐다'는 분석을 내놨다. 즉 출가자 집단이 절 안에 보시물을 받기 시작하면서, 소유와 재산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됐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출·재가 사이에서 소유에 대한 갈등이 유발됐다는 지적이다.

박광서 참여불교재가연대 공동대표는 '출가자 중심의 불투명한 예산 집행과 종권의 독점 문제는 출·재가자 간 불평등을 유발시키는 핵심 원인이 된다'며 '재가자들이 주장하는 종단 및 사찰 재정의 투명화 공개와 중앙종회 참여 요구 등은 출가자 위주의 운영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박 교수는 또 출가자의 '느슨한 지계행'



불법에는 출·재가의 차별이 없다. 다만 차이만 있을 뿐이다. 사진은 합천 해인사에서 열린 필만대장경 축에서 출·재가자들이 줄지어 '안행(雁行)'을 하고 있는 모습. 현대불교 자료사진.

출·재가자 간 간극이 넓어졌다고 목 교수는 설명한다.

조계종 중앙신도회 손안식 상임부회장의 진단도 비슷하다. 출가자가 '머리'로서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했고, 재가자는 '손과 발'이 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손 부회장은 이에 대해 '출가자가 지도자로서 불교사상을 전담하면 재가자는 이

'제한적 종회 참여'에 동의하지만, 반응은 시큰둥하다.

조계종 중회의원 보경 스님(서울 법륜사)은 '재가자들의 종회 참여는 사부대중으로 구성된 교단의 성격상, 참여 명분 자체는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종회는 승단 내의 내부구조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재가자들의 종회 참여는 시기상조'라며 '다만 상·하원제로 종회를 구성한다면, 재가자의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말한다.

보경 스님의 이 같은 입장은 재가자의 종회참여 현실화가 출·재가의 위계질서를 무

너뜨릴 소지가 다분히 있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된다. 또한 출·재가자의 종회 인원 비율 문제 등에 대한 논란의 소지도 적지 않다. 종회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운영될지 미지수라는 의견이다.

조계종 제25 교구부사 봉선사 주지 철안 스님도 마찬가지다. 재가자의 종회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데 동의는 하지만, 출가자를 대상으로 한 추천권, 선출권 등의 권리 행사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철안 스님은 '종회는 종도들의 입법기구, 대의기구로서 종단 현안, 타종단과의 교류, 정치·사회 상황 등을 제대로 알아야 하는 만큼 전문성을 갖춘 재가자들의 종회 참여는 필수적'이라면서도 '다만 종회 내 재가자들의 역할 제한은 필요하다.

신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차원에서 활동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한다.

●재가자, '단계적 종단 운영 참여'

재가자들은 출가자들의 이 같은 입장에 대해 '단계적 종단 운영 참여'를 주장하고 있다. 재가자의 현실적인 종단 운영 참여가 힘든 현실을 감안한 입장이다. 종단 내 특별위원회 구성, 출·재가 협의기관 설치 등이 대표적인 제안들이다. 이는 출·1재가의 역할을 상호 논의와 교류를 통해 정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꾸준히 제기됐던 '승가의 투명성(청정성) 제고'와 '재가의 전문성 확대'라는 화두풀기에 한해법인 셈이다. 그리고 그 방안으로 투명성 보장의 경우 재가자의 사외(寺外)감사 제도를, 전문성 확보의 경우 종단 내 특별위원회 설치 제안도 힘을 얻고 있다.

이를 종합하면 재가자들은 △재가자의 인적 자원 개발 및 교육 △종단 내 환경 복지 미디어 인권 통일 국제연대 등 재가자 참여 특별위원회 설치 △재가자를 '파트너'로 인정하는 출가자의 인식전환 등이 현실화돼야 할 과제로 꼽고 있다.

각목 스님은 '출가자 중심의 종단 행정을 재가자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출가자는 재가자의 사표가 되고, 재가자는 출가의 외호자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이는 재가자를 종단 내 인간관계로만 이해해서 안 되고, 사회인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재가자의 한 발은 사회에, 한 발은 교단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할 것을 각목 스님은 강조한다.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천태종의 경우...

천태종은 1967년 창종 초부터 재가자들의 종회 진출을 중헌에서 규정했다. 재가자의 종회 의원 자격 요건은 '교도 중 30세 이상, 입교 5년 이상인 자'로, 선임방식으로 뽑고 있다. 현재 재가자 의원 수는 전체 30여 중 10명으로, 총무·재정·국제·법제 등의 4개 분과위원회별로 활동 중이다. 특히 4개 분과위원회 가운데, 재정분과 위원장은 재가자 종회의원이 맡고 있으며, 창종 당시부터 5년전까지 재가자가 종회의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재가자 종회의원은 종정 스님의 선임 방식으로 선출된다. 4년의 임기가 종료될 경우, 출·재가들이 동수로 참여하는 종단 내 종회의원전행위원회를 구성, 2배수의 종회의원 후보자를 종정 스님에게 추천한다.

천태종 중회 박노성 부의장(법제분과위원장)은 '재가자 종회의원의 활동의 특징은 출가자와 동등한 위치에서 입법 활동을 펼친다는 점'이라며 '종단에 결산 심의, 중헌·종법 개정, 종무감사 및 정책 질의 등의 활발한 의정 활동을 벌여, 재가자들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반영하고 있다'고 말한다.

■공주 학림사 수행공동체

출·재가가 함께 수행 공동체를 만든 공주 학림사(조실 대원)는 출·재가자 수행자를 한 도량에 두고 있다. 수행에는 출·재가의 구분이 없다는 선원 기풍 때문이다. 수행은 출가자가 100일간 수행정진하며, 재가자는 1개월에 한번 1주일 철야참선정진을 한다. 출·재가가 서로 경책이 되면서 수행행기를 북돋우며 정진하는 것이다.

공부점검은 수시로 빈틈없이 이뤄진다. 또 출가자의 구분이 없다. 먼저 화두가 없는 사람은 3천배를 회향한 다음에 화두를 받고, 화두가 있는 사람은 108배를 한 다음 공부점검을 해준다. 구멍지는 점을 생략하고 바로 점검을 받는다. 보름 단위로는 전체 대량의 공부를 일괄적으로 점검하기도 한다. 방식은 1:1. 시민선원 50여 명, 출가자 10여 명이 대원 스님에게 공부점검을 집중적으로 받는다.

초기율장 근거조항 없고 대응에선 차별 반대

출가자 중심 불투명한 예산집행·종권 독점 개선돼야

'사표와 외호' 관계 바람직... 제도 보완 필요

도 지적한다. 잘못된 방향을 오래 방관하면, 부패의 또 다른 이름이 된다는 주장이다. 때문에 엄격한 잣대로 과실에 대한 책임을 예외 없이 묻는 한편, 출가정신을 계율로서 엄정히 검증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역할분담'에 서투른 한국승가

목장배 교수는 출·재가 불평등의 핵심 이유로 '서투른 역할 분담에 있다'고 분석한다. 출·재가자들의 역할과 권한 등을 세밀하게 나눠야 하는데,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때문에 지도자로서 출가자의 역할 상실, 현실적인 활동가로서 재가자의 열정 부족 등으로 이어졌다는 진단이다. 출·재가자들이 상시적으로 만나 이런 문제를 고민할 자리를 마련하지 못해

를 받들고 구체적인 실천으로 옮겨야 하는데, 정작 출·재가의 참여 폭과 활동의 안급 등을 조율하는 종단 내 공식 기구가 없었다'며 '출·재가 종단 현안이나 사찰 운영 등에 대해 상시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협의기구가 구성돼야 한다'고 주문한다.

●출가자, '제한적 참여 동의'

이처럼 역할분담에 익숙하지 못한 한국의 출·재가들은 과연 종단 운영 참여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을까? 일단 출가자들은 재가자들의 적극적인 종단 운영 참여에 긍정적이다. 하지만 그 구체적인 방법과 활동영역에 있어서는 생각이 다르다. 대표적인 경우가 재가자의 중앙종회 참여 부분이다. 현재는 재가자의

넛질 소지가 다분히 있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된다. 또한 출·재가자의 종회 인원 비율 문제 등에 대한 논란의 소지도 적지 않다. 종회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운영될지 미지수라는 의견이다.

조계종 제25 교구부사 봉선사 주지 철안 스님도 마찬가지다. 재가자의 종회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데 동의는 하지만, 출가자를 대상으로 한 추천권, 선출권 등의 권리 행사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철안 스님은 '종회는 종도들의 입법기구, 대의기구로서 종단 현안, 타종단과의 교류, 정치·사회 상황 등을 제대로 알아야 하는 만큼 전문성을 갖춘 재가자들의 종회 참여는 필수적'이라면서도 '다만 종회 내 재가자들의 역할 제한은 필요하다.

한국 불자를 위한 달라이라마의 제3회 특별 법회

한국 불자를 위한 달라이라마의 제1회 특별 법회는 2003년 12월 26일부터 28일까지 서울 강, 티베트 망명정부 자리하고 있는 다람살라 남갈 사원에서 있었습니다. 이 특별 법회의 의미는 참으로 큰 것이었습니다. 달라이라마께서 한국 불자에게 하신 최초의 법문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전에도 한국 불자와 달라이라마의 만남은 많았습니다. 거의 개인적인 만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법회는 달랐습니다. <입보리행론>을 교재로 삼아, 제1장 보리심 공덕 찬탄품부터 제4장 보리심 발원품까지 한 구절 한 구절 달라이라마께서 그 의미를 짚어가며 읽어 내려 가셨습니다. 경전 속 활자처럼 불교화된 산티데바의 가르침이 우리 안에서 생생하게 되살아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산티데바의 가르침에 달라이라마의 승결이 더해지면서 <입보리행론>은 수행 지침으로 되살아난 것입니다. 2004년 10월 델리에서 한국 불자를 위한 달라이라마의 제2회 특별 법회가

보행되었습니다. 나흘간 진행된 이 법회에서는 <입보리행론> 제5장 호계정지품부터 제8장 선정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한국 불자를 위한 달라이라마의 제2회 특별 법회 때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일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의 제안으로 제2장 죄업 참회품을 독송을 하던 순간, 강당을 가득 메웠던 낭랑한 독송 소리는 조용한 울음으로 변했습니다. 티베트 화승과 티베트 불자까지 웃음들은 조용한 울음이었습니다.

오는 12월 12일부터 16일까지 5일 동안 한국 불자를 위한 달라이라마의 제3회 특별 법회가 다람살라 남갈사원 대법당에서 봉행됩니다. 달라이라마께서는 이번 법회를 시작할 때 <불교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법음을 열어갑니다. 아주 상세하고 구체적인 달라이라마의 가르침은 우리를 부처님의 가르침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며, 신행의 목표점을 명확하게 제시해 줄 것입니다. 소중한 가르침이 펼쳐지는 순간을 함께 하십시오.

".....보리심이라는 것이 참으로 대단하지 않습니까? 정말 큰 힘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리심에 대해 생각하면 슬프기도 하기도 기쁘기도 합니다. 저는 항상 즐거울 때도 슬플 때도 보리심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즐거울 때 보리심을 수행하면 즐거움에서 오는 우울감, 자만심, 다른 사람을 하찮게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슬플 때 보리심을 수행하면 절망이나 좌절 때문에 극단적인 행동 등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쁠 때도 슬플 때도 보리심을 수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겨우 몇 달, 몇 해만 하는 것이 아니라 허공에 가다할 때까지 기억하고 실천하겠다고 원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고 자주 암송하는 구절입니다.

허공이 존재하는 한 중생이 존재하는 한 저 또한 여기 머물러 중생의 고통을 소멸하게 하소서. (입보리행론 3장 보리심 전지품 22)

이렇게 기도를 하면 내면에 힘이 솟아 오릅니다. 또한 이 기도는 제 인생에 뚜렷한 목적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2003년 12월 28일 달라이라마의 한국인을 위한 법문 중에서.

입보리행론(入菩提行論) - 보살행의 실천에 들어가는 길
<입보리행론>은 대승 불교의 꽃인 '보살의 길'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입보리행론>은 총 10장 - 제1장 보리심 공덕품, 제2장 죄업 참회품, 제3장 보리심 전지품, 제4장 보리심 발원품, 제 5장 호계 정지품 제 6장 인욕품, 제7장 정진품, 제8장 선정품, 제9장 지해품, 제10장 회향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산티데바의 <입보리행론>은 티베트 사람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가르침입니다. 이를 반증하듯이 여러 종의 번역본과 종파별로 수많은 주석서가 있습니다. 10세기 이후부터 지금까지, <입보리행론>은 대승 불교의 핵심적인 가르침을 아주 쉽게 전달하고 있는 대표적인 논서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교재 입보리행론은 청전스님이 우리말로 번역한 것을 드립니다.

행사 일정
A팀 : 12월 10일 - 19일(10일간) - 법회동참 일정 (동참금 220만원)
인천-델리-다람살라-델리-인천
●장소 : 인도 다람살라 남갈사원 대법당
※ 참가신청 및 문의 : 본 행사는 법회진행비가 포함되어 있어 신청하신 분들만 참석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연락주시면 안내문을 발송해 드립니다.
B팀 : 12월 3일 - 18일(16일간) - 불교성지순례와 법회동참 일정 (동참금 265만원)
인천-델리-아그라-비라나시-보드가야-파트나-바이살리-쿠시나가르-기원정사-다람살라(법회)-델리-인천
●주관 : 여수 석천사 (전국스님 061-662-1607)